

군산시 국비 '1조 627억원' 익산지역 확진자 3명 추가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 전년도 대비 91억원 증액 미래산업 관련 예산다수 확보, K-뉴딜 선도 기대감

군산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국비 1조 627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1조 538억원 대비 91억원을 증액 확보한 군산시는 특히,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미래산업 관련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K-뉴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먼저 정부의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발표 및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연관 사업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총사업비 400억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40억원)과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관련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 143억원(총사업비 360억원)으로 범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닥친 지역 조선산업 위기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감소 기업 육성 관련 사업으로는 ▲군산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60억원(총사업비 380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성장센터 건립 289억원(총사업비 290억원),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총사업비 33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이는 SK 컨소시엄의 2조 1,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예상되는 370여개 기업 유치와 2

만여 명의 누적 고용 창출효과와 더해져 연계 사업간 시너지 효과로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추후 계획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RE100 집적화 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및 안전 관련 사업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시설 설치 2억원(총사업비 2억원),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24억원(총사업비 480억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8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소룡지구 및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2억원(총사업비 80억원),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사업 21억원(총사업비 56.89억원) 등이 반영돼 시민의 안전 도모 및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스마트 수도 관리 시스템을 마

련해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새만금 신공항건설 120억원(총사업비 7,80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원(2조6,139억원)을 확보해 올해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함께 군산 새만금이 대중국 및 동남아인·물적 교역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며, 지난 11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새만금을 한국과 뉴딜의 중심지로 개발할 것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으로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6억원(총사업비 60억원),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5억원(총사업비 21억원)이 반영되어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2개 이상의 기능을 갖춘 복합화시설이 구축됨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및 이용 편의 증진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군산=한영봉기자



군산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국비 1조 627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익산시, 2.5단계 방역체계 운영... 집합금지 대상 확대 등

익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가 110명으로 늘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3명에 이어 이날 오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108번(전북 383번) 확진자는 대학로 식당 방문객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0대인 109번(전북 384번) 확진자는 현재 감염경로나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10번(전북 385번) 확진자는 88번(전북 320번)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모두 자가 격리 중 확진된 사례이며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운영하며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집합금지 대상이 우선 유흥 단란주

점, 몰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에서 증바, 태보, 점핑 다이어트 등 GX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까지 확대됐으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운영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전 직원이 동원돼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PC방과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확진되거나 일상 생활 속 감염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익산시의회, 코로나 선제적 대응 긴급대책반 구성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익산시에 단기간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3일 긴급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대책반'은 익산시의회가 코로나19의 긴박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제·복지·교육·보건 등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 발생할 때 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기자

반원은 위원장인 박철원 부의장을 주축으로, 김경진, 김진규, 강경숙, 김수연 의원(각 상임위원장), 한상욱, 오임선, 신동해, 소병직 의원(각 상임부위원장), 총 9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우선 긴급대책반은 3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등동, 대학로 등 변화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전체 시의원이 지역구 방역 상황 점검 등 코로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자체 활동을 펼친다. /익산=장영원기자

익산시, 수능 이후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익산시가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에 나선다.

정현을 시장은 3일 유재구 시의회의장과 박철원 부의장 시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장, 직원들은 도심 곳곳을 돌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익산=장영원기자

이날 추진된 점검은 수능시험 종료 후 학생들이 주요 도심으로 몰려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동 모험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부송동 등 총 6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며 직원들은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거리를 거닐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준수 등 집중 계도 활동을 이어갔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정부 보급품 종자 신청 익산시, 15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보급품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보급품종은 생산 단계별로 철저히 품질 관리된 우량 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발아율이 높아 수확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시는 국립종자원의 비 정부보급품 공급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공공비축기인 해품을 비롯해 신동진, 동진찰 새누리, 미품, 운광, 해당살, 수광 등 8품종 244.22톤 분량을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비 정부보급품은 전량 소독되지 않은 종자가 보급되므로 반드시 농가에서 직접 종자소독을 하여야 한다.

보급자는 오는 28일까지 수미, 서흥, 하령 등 3품종 19.16톤 분량을 신청을 받으며 1월말부터 4월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기자

군산대, 대야시장 활성화 다양한 물품 제작 지원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2일 대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군산대학교 인문사회협력센터와 대야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물품은 대야오일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작한 물품들로, 핸드카트 300개와 구매물품 운반용 대형 카트 10개, 화장실 안내표지판 3개 등이다.

물건을 구매할 후 주차장까지의 이동이 멀어 힘들다는 방문객들의 의견에 따라 소형 및 대형 카트를 제작해 상인과 방문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화장실의 위치를 몰라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일장 진입로와 중앙에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힘찬 시작

금호엔비텍·금호로지스 이지태 대표 성금 2000만원 기부

(주)금호엔비텍·(주)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가 연말을 맞아 동절기에 취약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며 3일 군산시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주)금호엔비텍·(주)금호로지스 이지태 대표는 5년간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터 회원으로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탁식에 참여한 이지태 대표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에 맞춰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천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눔에 실천해 주신 이지태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전했다. 또한 "허거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온 시민들에게도 전해져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